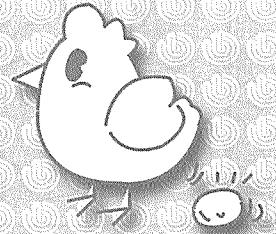


# 대한양계협회소식



##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건의

본회는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축산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회업의 정의를 명확히하고 종계에서 생산된 종란의 의미를 축산법에 명시하여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량한 병아리 생산을

원천적으로 막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현재 축산법 시행규칙에는 종란을 씨알로 규정하면서 백세미 등 종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닭을 포함하고 있는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원하는 법 개정을 위해 “씨알”과 “종란”的 정확한 정의를 놓고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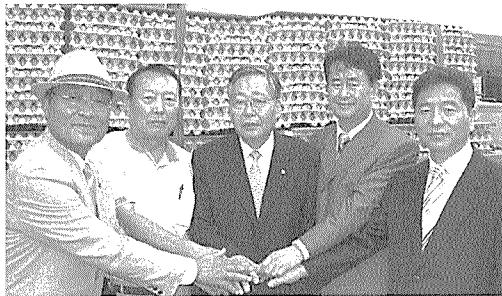
### 1. 축산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사 유
<b>제 2조 (정의)</b> 5. “종족업”이라 함은 종족을 사용하고, 그 종족으로부터 농림부령이 정하는 번식용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b>제 2조 (정의)</b> 5. “종족업”이라 함은 종족을 사용하고, 그 종족으로부터 농림부령이 정하는 번식용가축 또는 씨알(종란)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종란(씨알)이라 함은 법 제6조(가축의 등록)에 의거 종계의 임컷(♀)과 종계의 수컷(♂)에서 생산된 알을 뜻하는 것임. 즉 실용계의 임컷과 종계의 수컷이 교잡되어 생산된 알은 종란이 아님을 확실히 밝히고자 함
<b>제 7조 (가축의 검정)</b> ① 농림부장관은 가축의 능력의 개량 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관련기관 및 단체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가축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b>제 7조 (가축의 검정)</b> ① 농림부장관은 가축의 능력의 개량 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관련기관 및 단체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가축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해야 한다.	가축의 검정(일반검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 2.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사 유
<b>제 4조 (부화업 대상의 일)</b>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일이라 함은 닭 및 오리의 일을 말한다.	<b>제 4조 (부화업 대상의 일)</b>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일이라 함은 닭(종계) 및 오리의 일을 말한다.	상계(임명 백세미)용 병아리를 생산하는 어미 닭(산란실용계 위)은 기준의 종계와는 달리 방역 등을 세대로 하지 않는 가운데 종란(씨알) 생산하여 각종 질병전파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물론 양계농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음
<b>제 5조 (종족업의 대상)</b> 법 제2조제5호에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이라 함은 떼지·닭 및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닭”의 “일”을 말한다	<b>제 5조 (종족업의 대상)</b> 법 제2조제5호에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이라 함은 떼지·닭 및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닭(종계)”의 “일(씨알)”을 말한다	번식용 씨알이라 함은 종계의 일(씨알)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b>제 9조 (가축의 검정)</b>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씨알”이라 함은 종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족증 씨암탉과 씨수탉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생산된 일을 말한다.	<b>제 9조 (가축의 검정)</b>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씨알(종란)”이라 함은 종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족증 씨암탉과 씨수탉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생산된 일을 말한다.	가축의 검정에 있어 번식용 일(씨알)을 생산하는 모든 닭(종계)에 대하여 일반검정을 받아야 함
<b>[별표 24] 구비서류</b> 1. 종돈업의 경우에는 종축등록기관의 등록증명서 사본 1부 (개설신고의 경우에 한함) 2. 종계업의 경우에는 종축검정기관의 검정확인서 사본 1부 (개설신고의 경우에 한함)	<b>[별표 24] 구비서류</b> 1. 종돈업의 경우에는 종축등록기관의 등록증명서 사본 1부 (식 제) 2. 종계업의 경우에는 종축검정기관의 검정확인서 사본 1부 (식 제)	법 제20조제1항·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계군별로 등록을 실시해야 하나 개설신고의 경우에 한하여 검정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각 계군별로 종계일반검정을 받지 않는 농가가 늘어나기 때문임

## 15만개 계란, 불우이웃에 전달



본회(회장 최준구)는 지난 12일 불우이웃돕기 자선단체인 나눔과기쁨(공동대표 서경석, 최창학) 등을 통해 서울·경기일원 불우이웃에게 15만개의 계란을 전달하였다.

이 계란은 당초 한민족복지재단(회장 김형석)을 통해 북한에 보내기로 했던 계란으로 북한측에서 검역관계로 받기 어렵다는 내용을 통보해옴에 따라 국내 불우이웃 돋기로 급선회 한 것이다.

북한 계란보내기 및 불우이웃돕기 운동은 최근 난가가 생산비선 이하를 기록하면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대한양계협회 김포채란지부(지부장 임재룡)에서 수급조절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기부를 의뢰해 전격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한민족복지재단에 이양되어 선적을 기다리던 계란이 출항을 하루 앞두고 북한측이 받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계란이 인천항에 방치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번에 전달된 계란은 나눔과기쁨(5만개)을 비롯, 강동구청(5만개), 광주일원(3만개), 양평군청(2만개) 등을 통해 불우이웃에게 전달되었다.(사진 왼쪽부터 문승치 운영위원(사랑과 기쁨), 조태환 국장(한민족복지재단), 최준구 회장(대한양계협회), 최창학 공동대표(나눔과기쁨), 문기준 운영위원(나눔과기쁨))

## 채란분과위원회

### 병아리 감축 요청 및 불우이웃에 계란보내기 실시



지난 5일 본회 회의실에서 8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김선웅)가 열렸다. 계란 가격 할인폭이 증가하여 평균 계란 생산비 이하선에서 거래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종계농가 병아리 생산감축과 노계 도태, 체화 물량 처리가 방안이 중점 거론되었다.

장기적인 불황대책으로 병아리 생산을 한달간 생산하지 않고 그 이후부터는 생산잠재력의 80%의 수준만 생산하는 것을 종계농가에 요청하였고, 종계농가도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논의키로 하였다.

노계 도태 관련하여 미환우 노계 이동 차단과 노계 도태 주령 기준(80주, 90주, 100주)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는 방안과 노계 도태시 도태확인서를 종계 농가에 제공하여 도태 주령을 준수하지 않는 농가에는 병아리를 분양하지 않는 방침 등을 9월에 논의키로 하였다.

계란 체화 물량 처리 방안으로 북한에 계란보내기를 추진하게 되는데 선순위로 8월 9일 김포채란지부(지부장 임재룡)에서 15만개를 인천항을 통하여 남포항으로 보낸다고 밝혔다.

이후 각 지역별로 계란을 모아서 북한에 보내고 상황을 살핀 후 지속적으로 보내는 방안도 검토키로 하였다.

### 육계분과위원회

#### 육계 의무자조금 농가 구심점으로 추진



지난 17일 천안에 위치한 송절찻집에서 1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8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장재성)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병아리협의 소위원회, 계열농가협의회 소위원회, 육계의무자조금 건 등이 중점사항으로 논의되었다.

병아리 소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실수요자인 육계인들의 병아리 시세 참여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병아리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자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계열농가협의회가 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전국의 분과위원들이 노력해 나가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육계의무자조금과 관련하여 150명으로 구성될 육계자조금 대의원에 육계인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자조금 거출권 등 농가가 구심점이 되어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기타사항으로 종계D/B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 산란계감축협의회

#### 월말까지 월 400만수씩 감축, 생산기로



지난 10일과 17일 두차례에 걸쳐 본회 회의실에서는 한국양계TS, 조인, 양지부화장, 신진BHB, 봉산부화장 등 국내 산란실용계를 생산하는 종계농가가 모여 산란실용계 감축방안을 논의한 결과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00만수씩 감축, 생산기로 결의하였다. 이는 지난 8월 5일 채란분과위원회에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종계업계에 감축을 요청한데 따라 의견이 받아들여지며 이루어진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다수의 종계농가들은 채란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비추었으나 불황에 대한 대책 마련과 책임을 종계농가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채란업계의 실현 가능한 불황대책(환우금지 등)이 함께 실천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종계농가들은 채란농가의 성의 있는 대책 실현을 기대하면서 9월 병아리 생산을 중단한다는 것은 이미 계약된 물량이 상당수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것은 산란농가와 종계농가 모두에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어려움도 있지만 불황극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차례에 걸친 대표자와 실무자 회의에

서는 종계인들이 서로 믿음을 갖고 실천해 가면 충분히 지켜질 수 있으며, 양계협회에 관리감독을 의뢰하여 크로스체킹으로 이 사업을 차질없이 실천해 가기로 하였다. 올 하반기에 생산되는 병아리가 감축될 경우 2년간의 불황을 1년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육계자조금준비위원회 개최 10월 하순경 대의원 선거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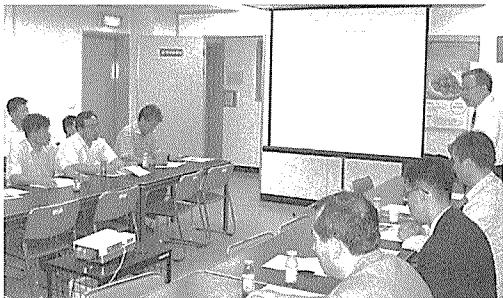
육계자조금준비위원회(위원장 한형석)가 지난 23일 수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본회 최준구 회장, 장재성 육계분과위원장 등 준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육계자조금 선거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하고 계획에 의거 의무자조금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간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따라서 일정에 의거 오는 10월 하순경에 대의원 선거를 치르기로 하고 지역별 대의원 선출 등 준비작업을 무리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한형석 위원장이 맡아 추진키로 하였으며, 추진 비용은 각 단체(양계협회, 계육협회, 축협)에서 동일하게 분담하여 거출키로 하였다. 한편, 종계업계도 육계자

조금 사업에 동참키로 하였으나 거출 비율에 대해서는 차후 결정키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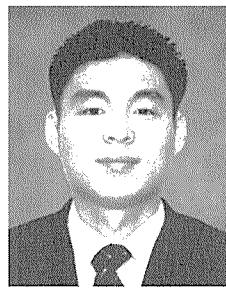
## 종계 데이터베이스(D/B) 프로그램 시연회 개최



지난 4월 1일부터 정부의 위탁사업기관으로 본 회가 선정되어 실시하고 있는 종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종계데이터사업 프로그램 시연회가 지난 19일 본회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본회 최준구 회장을 비롯 이언종 종계부화분과위원장, 조병임 농림부 사무관, 가금수급안정위원회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프로그램 제작업체로 선정된 애니인포넷의 설명으로 진행되었다. 시연회를 본 참석자들은 농장과 수수파악, 데이터입력도 중요하지만 자료를 통해 차후 양계경기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해 갈 것을 요구했으며, 제작업체 측에서는 모든 자료가 축적이 되어야 통계와 전망이 나오는 만큼 양계협회와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보완,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을 약속하였다. 이번에 시연을 한 프로그램은 종계판매이동관리, 원종계사육관리, 종계장<sup>n</sup>계사관리 등 크게 3분야의 주작업메뉴로 나뉘어져 있으며, 계군판매현황 등 현황조회를 할 수 있는 조회출력 기능 등 정보

의 유기적인 결합과 보안체계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메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본회 신입사원 채용 기영훈 씨 홍보팀 근무



▲ 기영훈 씨

본회는 지난 8월 1일부로 홍보팀에 기영훈씨를 채용하였다. 기영훈씨는 건국대학교 축산식품 생물공학과 졸업예정자로 재학시절 BBQ 등 축산관련업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전경험

을 길러왔다. 기영훈씨는 입사후 지난달 16일~20일동안 안성에 위치한 본회 검정소에 파견, 실습을 마친 바 있으며, 3개월간의 수습을 거친 후 월간양계 기자 및 협회 홍보관련 업무 등을 맡게된다.

(지회 및 지부)

## 충북도지회 정식 지회 면모 갖춰



▲ 지난 4월 15일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있었던 창립총회 모습

충북도지회(지회장 이준동)가 지난달 11일부로 지회여건을 갖춤에 따라 정식 지회로 발족하게 되었다. 충북도지회는 지난 2004년 2월 지회설립을 본회에 요청하면서 준비가 이루어져 왔으나 지회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이 미비하고 육계인 회원 위주로 구성이 되면서 본회 이사회를 통해 여건이 갖추어질 경우 인정을 해주는 조건부 승인을 해 준 바 있다. 충북도지회는 최근 김선태 상무와 최윤희 직원을 영입하고 사무실을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마련하였으며, 육계회원은 물론 산란계회원들까지 참여하면서 지회여건을 갖추게 되면서 지회로써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충북도지회는 지난 18일 지역내 20여명의 채란인이 모인 가운데 결속을 위한 회의를 가진 바 있으며, 조만간 확대모임을 갖고 채란인들의 단합을 꾀해나갈 예정이다. 충북도지회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15일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이원종 충북도지사를 비롯, 본회 최준구 회장 등 각계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가진 바 있다.

## 김포채란지부

‘북한에 계란보내기 운동’에 써달라 계란 5천판 쾌척

김포채란지부(지부장 임재룡)는 고병원성가금 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사육수수 감소로 인해 계란값이 크게 올랐었지만 최근들면서 강체환우와 노계도태 지연 등으로 인해 계란값 하락이 지



▲ 임재룡 지부장

속되자 차후 불황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에 계란 보내기 운동'에 써달라고 회원들로부터 자발적으로 모은 5천판(15만개)의 계란을 쾌척하였다.

따라서 본회는 북한어린이돕기 자선단체인 한민족복지재단을 통해 10일 출항하기 위해 김포지부로부터 8일 인천항에 계란을 도착시켰다. 그러나 출항 하루전인 9일 북한측으로부터 방역과 보관상의 문제로 계란반입을 거절함에 따라 불우이웃돕기로 급선회하여 경기도와 서울인근 지역의 불우이웃에게 전달하였다. 임재룡 지부장은 '계란이 비록 북한에 전달이 되진 않았지만 불우이웃을 돋는데 쓰여 기쁘게 생각하며, 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계란을 북한에 보내기로 결의해주신 김포지부 회원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포지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란우수성 홍보를 통해 채란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나갈 예정이다.

## 파주육계지부 사무실 이전



▲ 임춘경 지부장

파주육계지부(지부장 임춘경)가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1일 사무실을 파주시 금촌동 파주축협 물류센터 내로 이전하였다. 임지부장은 회원들의 단합을 강조하고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430-4 파주축협 물류센터

- 전화 : 031-941-3008(전과동일)
- 팩스 : 031-942-3886

### 회장동정



◀ 최준구 회장

- 8/1 신입직원 임용장 수여식
- 8/2 유창우 사장 · 임국장님과의 간담회
- 8/4 제 2차 쌀협상 관련 농업인 단체 초청 간담회
- 8/5 8월 채란분과위원회
- 8/10 한국국제축산박람회 공동주최 단체장회의  
2005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전문지 기자간담회
- 8/11 농단협 제3차 임시총회  
전 축협간부 직원과의 오찬
- 8/12 농축산업발전을 위한 건전경마추진 협판식  
불우이웃 계란나눠주기 전달
- 8/16 '05 한국국제축산박람회건 협의차 국회  
4개 단체장 방문
- 8/16 제3차 농업인단체장 초청 간담회
- 8/18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 새단장 개장식
- 8/19 종계 D/B 프로그램 시연회
- 8/23 좋은아침모임 제19차 세미나  
'05년 제1차 육계공동자조활동자금 준비위원회  
'05. 제 5차 신축산회관 건립추진위원회
- 8/24 제10회 농업인의날 행사추진위원회  
'05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 8/26 제5회 한우인의 날 행사 및 창립기념식